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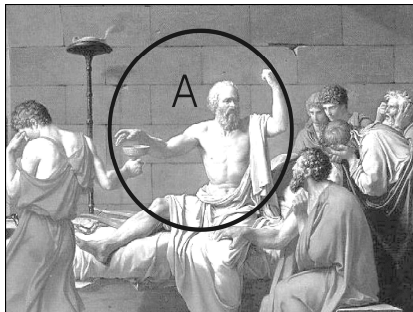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2

1. 다음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귀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사랑하고, 잘못된 행동을 경멸한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스스로 진리인 양 행동하지 않고, 참된 것을 찾고자 노력한다. 그는 영혼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이를 먹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

- ① 명예와 부의 획득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자연의 일부로서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③ 진리 탐구에 힘쓰면서 도덕적인 삶을 지향한다.
- ④ 감각적 본능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 ⑤ 도덕적 구속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2. 다음은 A 사상가와 관련된 미술 작품과 설명이다. A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원 안의 A 사상가는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 독약을 마시게 된다. 그는 소피스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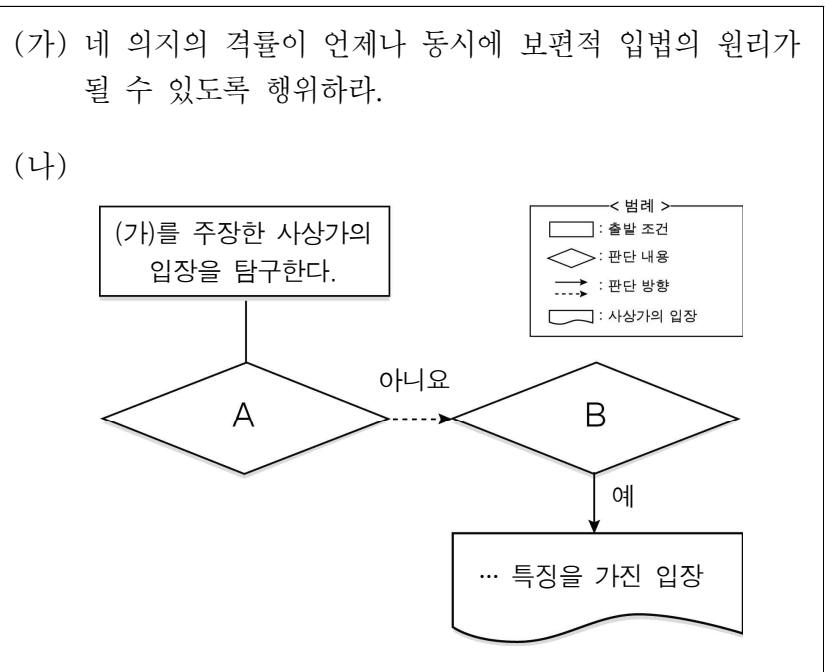
- ① 유용성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된다.
- ② 감각적 경험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 ③ 진리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 ④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무지의 자각은 참된 삶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3.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이것이 있으므로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生)하므로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滅)하므로 그것이 멸한다.
○ 색(色)은 모인 물방울과 같고, 수(受)는 물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 나무와 같으며, 식(識)은 꼭두각시와 같음을 깨달아라.

- ① 현실 세계의 모습은 영원불변한 것인가?
- ② 모든 사물은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는가?
- ③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자아가 참된 자아인가?
- ④ 모든 존재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 ⑤ 인연에 의해 만물의 고정된 실체가 형성되는가?

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의무 의식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가?
- ② A: 도덕 법칙은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인가?
- ③ B: 인격은 단순히 수단적 가치만을 가지는가?
- ④ B: 선의지를 따를 때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는가?
- ⑤ B: 상황에 따라 도덕 법칙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가?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간주되어온 여성다움은 선천적인 본성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의 문화적 장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성은 옛날부터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당한 성차별적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을 남성에 의존하는 열등한 타자(他者)로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여성은 불평등한 타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보 기 >

ㄱ. 남녀는 대등한 주체적 존재이다.
ㄴ. 남녀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ㄷ. 여성다움은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
ㄹ. 여성의 지적 능력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그림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의 가상 토론이다.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인륜 도덕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
- ② 을은 서양 사상을 통한 급진적 개혁을 강조한다.
- ③ 병은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
- ④ 갑, 을은 근대화된 서양 문물의 수용을 강조한다.
- ⑤ 을, 병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봉건적 질서를 중시한다.

7.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 움직이게 하는 것 또한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것에도 움직여지지 않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 존재가 바로 신(神)이다.

을: 참회(懺悔)란 교회에서 성직자가 집전하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황의 면죄부를 통하여 인간이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교인은 면죄부 없이도 벌이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 보 기 >

ㄱ. 갑은 이성적 추론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ㄴ. 을은 장엄한 예배 의식보다 개인의 참된 신앙을 중시한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성서보다 교회의 권위를 중시한다.
 ㄹ. 갑, 을은 도덕적 덕만 갖추면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이며, 누군가의 사촌 혹은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혹은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혹은 저 단체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종족, 저 씨족, 이 민족에 속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나는 가족, 도시, 종족, 민족의 과거로부터 다양한 은혜와 유산,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이런 것들이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이룬다.

- ①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 의지를 제약하는가?
- ② 공동체는 단지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한가?
- ③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가?
- ④ 도덕적 선(善)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 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가?

9.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은 인간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대해 고정하지 않고 인간이 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덕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에 따라 선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은 너의 공(功)이 될 것이고, 악을 좇아가면 그것은 너의 죄(罪)가 될 것이다.

- 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 ②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의예지를 지니고 있다.
- ③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 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다.
- ④ 덕은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 ⑤ 모든 욕망은 도덕적 삶을 위해 제거해야 할 악이다.

10.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법령으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린다면 백성은 법망을 뚫고 형벌을 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린다면 백성은 수치를 알아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을: 도(道)를 잃어버린 뒤에 덕이 나타나고, 덕을 잃어버린 뒤에 인(仁)이 나타나며, 인을 잃어버린 뒤에 의(義)가 나타나고, 의를 잃어버린 뒤에 예가 나타난다.

- ① 상과 벌을 활용하여 통치해야 한다.
- ② 예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신분과 지위에 맞는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④ 인의(仁義)를 토대로 한 도덕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 ⑤ 성인(聖人)을 본받아 백성을 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3

11.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정당한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나)	㉠.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①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라
- ② 일체의 욕망을 제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 ③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따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라
- ④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고 보편적 이성애 따라 행위하라
- ⑤ 쾌락의 양을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라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손발이나 몸을 잊고 귀와 눈의 작용을 멈추게 하라. 몸을 떠나고 앓을 몰아내라. 그리하여 큰 통함과 하나가 되라. 이것을 좌망(坐忘)이라 한다. 정신을 집중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 기는 텅 비어 있어서 무엇이나 다 받아들여려고 기다린다. 도는 오직 허(虛) 속에만 모인다. 이렇게 비우는 것이 심재(心齋)이다.

- ① 오감(五感)을 통해 참다운 진리를 깨닫는다.
- ②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禮)를 회복한다.
- ③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지식을 늘려 나간다.
- ④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분별적 지혜를 추구한다.
- ⑤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13. 갑,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천지의 조화와 인간 마음의 발동은 모두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타지 않는 것이 없다.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이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을: 천지간에 이가 있고 기가 있는데, 이는 기의 장수이고 기는 이의 졸병이다.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은 이를 주로 해서 말한 것이니 사단이 그런 것이다.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것은 기를 주로 해서 말한 것이니 칠정이 그런 것이다.

- ① 이와 기가 모두 발한다는 주장은 옳다.
- ②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옳다.
- ③ 이는 귀(貴)하고 기는 천(賤)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 ⑤ 사단은 성(性)이고, 칠정은 정(情)이라고 해야 한다.

14. 그림의 갑,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갑은 직관과 체험보다 과학적 지식을 중시한다.
 ㄴ. 을은 개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한다.
 ㄷ. 갑은 욕구 충족을, 을은 참된 실존의 회복을 추구한다.
 ㄹ. 갑, 을은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 (나) 사회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 방법과 달리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 사회주의적 계획화는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공업 등 주요 부문에서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권력이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폭력 혁명으로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까지 사라지게 할 것이다.

< 보 기 >

ㄱ. (가)는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ㄴ. (나)는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ㄷ. (나)는 사유 재산제를 사회악의 근원으로 파악한다.
 ㄹ. (가), (나)는 계급과 국가가 사라진 공산 사회를 지향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6. 그림은 어느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의 일부이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송·명 시대의 유학>

1. ㉠

- 타고난 본성이 곧 이임[性即理].
- 만물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된 것임.
- 사물에 나아가 앎을 이루는[格物致知] 공부를 해야 함.

2. ㉡

- 마음은 성이요, 성은 곧 이임[心即理].
-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임.
- 내 마음의 양지를 발현하는[致良知] 공부를 해야 함.

- ① ㉠은 기(氣)가 만물을 낳는 원리라고 주장한다.
- ② ㉠은 모든 사물을 주관적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 ③ ㉡은 지(知)와 행(行)이 별개라고 주장한다.
- ④ ㉡은 양지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 ⑤ ㉠, ㉡은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17. 표는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가 응답한 가상 설문 결과이다. ㉠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설문 항목	응답	
	예	아니요
지나친 쾌락의 추구는 고통을 야기하는가?	✓	
인간의 행위는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가?		✓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ataraxia)를 추구해야 하는가?	✓	
㉠	✓	

- ① 세계와 인간의 본질은 이성인가?
- ②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아야 하는가?
-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 판단의 기준인가?
- ④ 순간적인 쾌락보다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⑤ 은둔자적인 삶보다 사회 참여적인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1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근대 서양의 어느 사회 사상가에 따르면, 각 개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 생산물의 최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입장은 '㉠'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① 사회적 재화를 차등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 ②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 ③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을 증시해야 한다.
- ④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 ⑤ 개인의 합리적인 이익 추구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

19.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 이는 그 부모와 친분을 맺기 위함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 선함은 인위(人爲)의 결과이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남과 쟁탈을 하게 되고 사양함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의 규범에 따른 감화와 예의의 인도를 받은 후에야 올바르게 되고 천하가 다스려지게 된다.

- ① 갑은 생리적 욕구가 인간 본성의 전부라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본성의 교화를 위해 외적 규범인 예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것은 본성 때문이라고 본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 갑,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사상을 비교하시오.

갑: 교(敎)를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고자 하며, 선(禪)을 익힌 사람은 외부의 대상을 잊고 내적으로 깨치고자 하는데, 이는 다 같이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을: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홀연히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익혀 온 습기(習氣)를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 학생 답안

갑은 ㉠ 세속과 진리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강조하였고, ㉡ 경전 공부와 마음을 닦는 일을 함께 하는 수행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을은 ㉢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소멸시킬 것을 강조하였고, ㉣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수행을 제시하였다. 갑과 을은 모두 ㉤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